

建築士, 오늘 우리가 처한 現實

金一榮 (본회이사·동신건설공사 대표)

영국의 존 러스킨은 「인간의忘却에 대한 강한 정복자로서는 오직 돌뿐이다. 그것은 建築과 詩라고 하였다.」 또한 精神史의 記憶化는 建築을 하는 일이며 동시에 어느 場所에 定着시키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 강한 정복자 중의 하나가 우리 건축인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人類史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오늘날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방면에서 잡시도 될 사이 없이 많은 정보와 변화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우리들은 미처 따라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 하루를 바쁘게 쫓아 움직이고 있다. 아마 이것이 대다수 建築士가 처한 오늘의 現實이 아닌가 생각한다. 外的으로는 경영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建築知識을 소화·흡수해야 하고 受注, 情報에도 신경을 써야하며, 內的으로는 보조원의 인사관리면에 이르기까지 多次元的인 思考와 행동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정보·경영, 터우기 近年에 와서는 폭넓은 社會性과 時事的인 경제성까지도 몸에 익혀야만 밝고 확실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하는 희망에서 신문의 경제, 정책면에 신경을 쏟고, 각계각층의 인사·기업인들과 만났기회가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 생산활력 문제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밝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반성과 재정비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인생이 당초에 無에서 시작했듯이,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실도 처음 개업시에 한 두사람으로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모가 조

금씩 확대·신장되면서 경영상의 한계성을 느끼게 된다.

즉 일정한 생산품을 연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시간에 쫓기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월말을 맞는 것이다.

建築士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기본설계·상세도는 없는 것일까? 우선 기본설계부터 생각해 보자.

무엇이 나와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문제인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方案인가? 나와, 나아가서는 우리 建築士에게 꼭 필요한 기능과 무기는 무엇인가? 어떤 범위가 우리 생활의 場이며 어떤 업무형태와 행위가 주위환경과 사회에 알맞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 建築士協會의 제도와 체제가 가장 理想的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建築法과 建築士法, 그리고 업무체제 및 건축허가제도 등을 둘러싼 많은 사연들이, 처음 건축주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설계시작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혹은 준공후의 일정시간까지 끊이지 않고 많은 잡다한 세속적인 사건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도시정비에 따른 都市設計와 建築設計, 技術用役法에 의한 업무와 건축사 업무의 관계, 建設業法, 預算會計法과 입찰제도, 그리고 建築設計와 관련된 제반업무와 급변하는 각종 사건들은 변화와 발전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건축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주변정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협동하고, 지혜를 짜내어 공동의 목적과 이상적인 建築士像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건축사무소 경영자가 처한 오늘의 현실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오늘 우리 주변의 건축관계 제정책의 기상도를 살펴보면 都市建築物은 단일건물에서 대형화·복합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구나 地區化되어 커다란 유기적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당국에서도 職任一體方式의 도시재개발정책을 발표하여, 도시정비사업이 官이나 民間大企業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

다.

한편, 정부의 設計·施工·一括入札方式이 81년도에 이어 82년도에도 계속 같은 방식을 채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사비를 절감키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종전의 생산기업에서 하던 각종 품질관리·원가절감방식 등을 건축에서도 외면할 수 없다. 또한 건축의장보다는 기능적이며 과학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성 있는 건축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체계열 생산업체를 많이 가진 대기업의·독주가 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며 건축의 質的, 審美的인 면에서는 후회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이러한 입찰방식의 채택에도 장단점이 있어 어떤 면에서는 후회되어 가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조속히 虛와 實을 반성하여 재검토·수정집행될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때에 따라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관계, 시공자와 감리자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건축주의 임의성에 대한 制止策으로서 고발할 수도 없는 설계감리자의 고민이다. 그러므로 건축주의 준법정신과 선량한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건축주의 의식수준과 건축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建築士 자신들은 근대적인 건축기술 정보감각에 투철해야 하며 현실과 미래에 부끄러움이 없는 전문건축인으로서의 자세와 긍지, 그리고 基本哲學을 가지고 닥아올 88년의 大行事와 2천년대의 건축문화 유산을 남기는데 밀거름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자료를 보고 듣고 익히고 연구하여 발전시킴과 동시에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한 오늘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건축사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단결하여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어 슬기롭게 행동함으로써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되며 本協會를 求心點으로 단결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겠다. <*>